

numbers 제 63호



주요 내용

2020. 09.11

1. 이번 주 주제 : [코로나19 이후 대학생 의식과 생활 변화]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2. [정치 분석]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일반 사회 통계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청춘(靑春)!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鼓動)을 들어 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巨船)의 기관(汽罐)과 같이 힘있다. 「청춘예찬」이라는 수필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청춘은 아름답다. 짓눌리지 않아서 아름답고, 다채로우서 아름답다. 그 가운데서도 대학생은 청춘의 꽃이다. 고단했던 중고등학교의 입시 지옥을 지나서 활짝 핀 세상이 주는 것들을 누리며 역동적으로 살아가도 부족할만큼 뜨거운 세대이다.

그런데 우리 대학생은 정말 아름다운가? 그들에게는 화사한 기운만 넘쳐날까? 「청춘예찬」의 구절처럼 피가 끓는 청춘을 살까?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의 즐거움을 누리면 살까? 그러나 코로나시대 우리의 대학생들은 거의 절반 가까이 무력감 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처한 현실이, 코로나19로 인한 현실이 대학생을 힘들게 하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63호는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 리포트가 코로나시대에 대학생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이번 넘버즈 호(63호)는 학원복음화협회가 2020년 9월 8일 주최한 ‘코로나19 시대의 캠퍼스/청년 사역의 과제와 전망’ 포럼 중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 변화 조사 요약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 변화 조사
요약 보고서**

2020.09.08

학원복음화협의회

● 조사목적

*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변모시키고 있다. 이는 대학생도 예외가 아니어서 개인생활에서부터 학교생활까지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이에 학원복음화협의회는 변화하는 대학생의 의식과 실태를 확인하고자 본 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 조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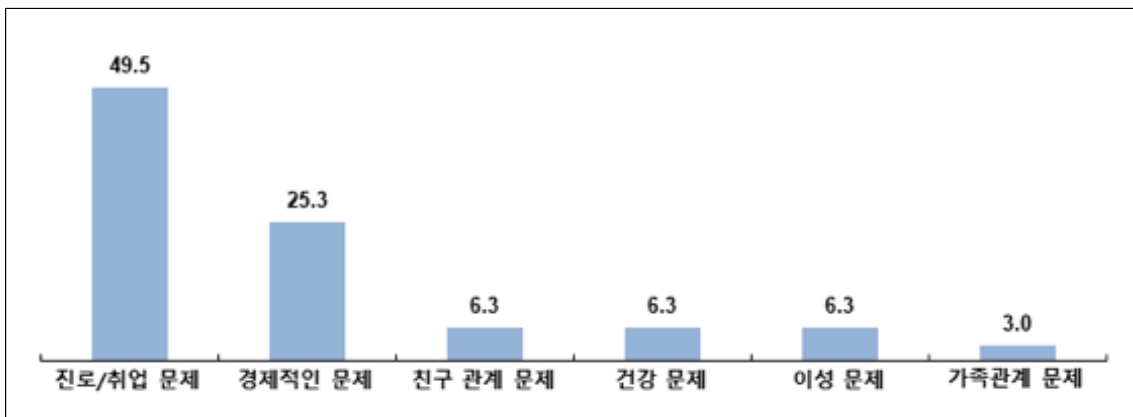
구 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 대학교 재학 중인 학부생(2~4년제)	
조사 지역	전국	
표본 수	총 400명(유효 표본)	
표본 추출	유의할당추출 (purposive quota sampling)	
	1학년	200명
	2~4학년	200명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pm 4.90\%$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온라인 패널 이용)	
실사 기간	2020년 7월 30일 ~ 8월 11일 (13일간)	
조사 기관	· 조사 진행 : (주)지앤컴리서치, · 조사 결과 분석 : 목회데이터연구소	

1. 대학생들의 최대 고민은 ‘취업/진로’문제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학생들의 최대 고민거리는 ‘취업/진로 문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실 이 현상은 이것은 2017년 학원복음화협의회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발간한 「청년 트렌드 리포트」(2017년, IVP)에서도 드러났지만 대학생의 최대 고민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학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묻는 질문에 49.5%가 취업/진로 문제’라고 응답했다. 2위 응답이 ‘경제적인 문제’였는데 ‘경제적인 문제’ 응답률이 25.3%인 것과 비교하면 ‘취업/진로’문제의 응답률 49.5%는 거의 2배 높은 응답률이었다. 그만큼 대학생의 고민거리의 대부분은 ‘취업/진로’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고민거리 : 상위 6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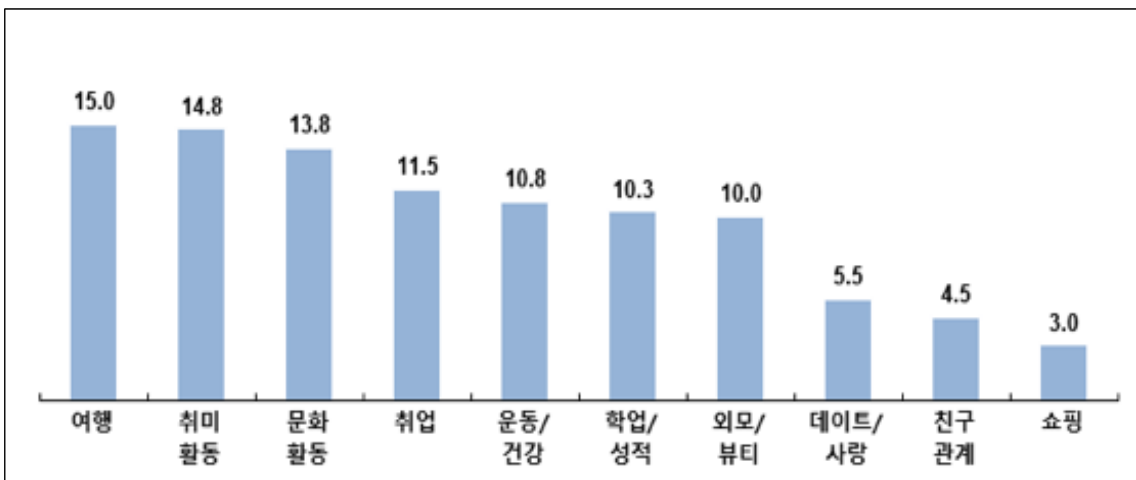
(Base : 일반대학생 전체, N=400, %)



또한 ‘평소 관심사’를 물어본 질문에도 ‘여행’(15.0%), ‘취미활동’(14.8%), ‘문화활동’(13.8%)과 같은 일상의 관심사에 이어 ‘취업’이 11.5%로 4위로 나타났다. ‘취업’이 비록 4위이기는 하지만 1위와 3.5%p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대학생에게는 평소 관심사가 되었다.

[그림] 평소 관심사

(Base : 일반대학생 전체, N=400, %)



또 휴학이나 재수를 고려한 이유도, ‘삶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가 40.7%, ‘취업준비를 위해’ 25.6%로 휴학/재수의 가장 큰 이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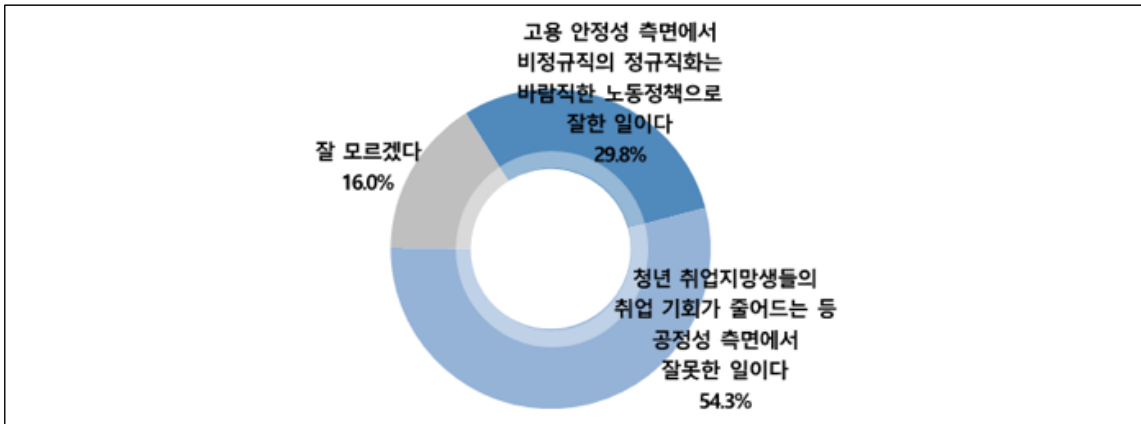
그러다 보니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해서 74.8%의 대학생이 취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특히 2학

년 이상만 국한해서 보면 81.0%가 취업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은 모두 취업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취업/진로' 문제는 대학생을 힘들게 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취업/진로' 문제가 최대 관심사이다 보니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인국공 문제가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등 공정성 측면에서 잘못된 일'이라고 54.3%의 대학생이 생각했다. 심지어 이념적 성향이 진보적인 학생도 40.8%만이 '잘한 일'이라고 하였고 그보다 8.0%p가 더 많은 48.8%의 대학생이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그림]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Base : 일반대학생 전체, N=4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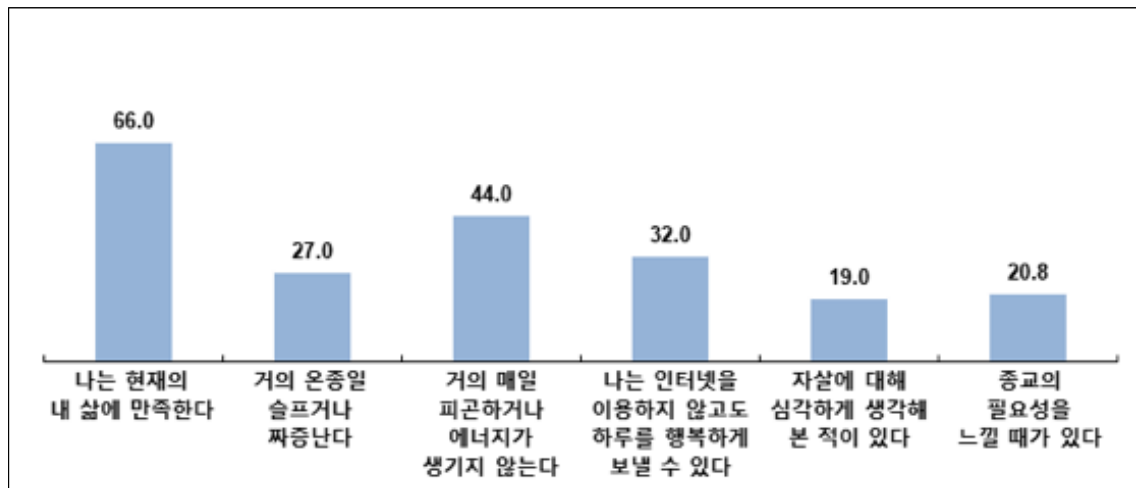


2. 대학생은 현재 생활에 대체로 불만은 없으나 상당수의 학생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대학생에게 현재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지 질문했다. 그 결과 66.0%가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만족한다는 66.0%를 자세히 보면 매우 만족은 11.8%이고 약간 만족은 54.3%이다. 이렇게 보면 대학생이 현재 생활에 크게 만족한다기보다는 큰 불만이 없는 편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응답이 44.0%라는 점이다. 즉 2명 가운데 1명 가까이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그림] 생활 만족도 (동의를 '매우+약간')

(Base : 일반대학생 전체, N=4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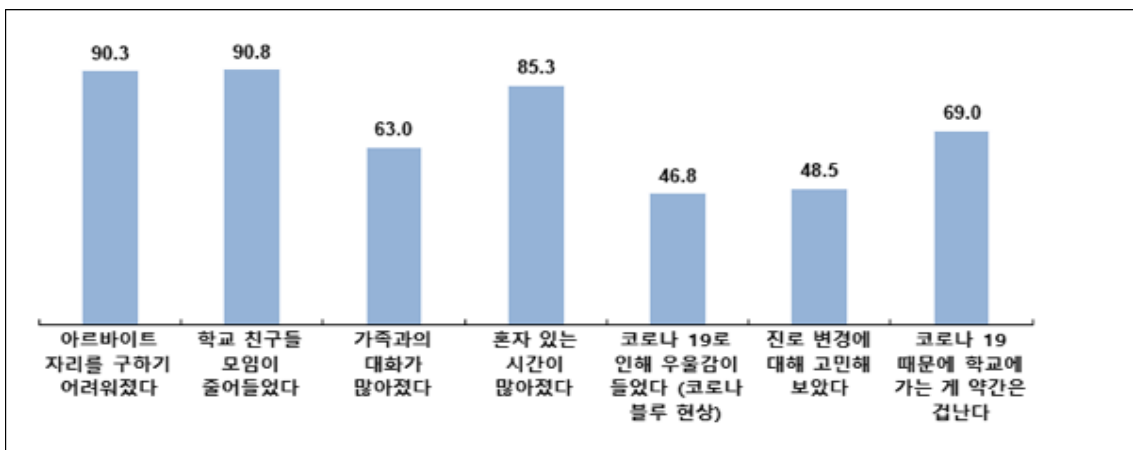
그런데 「청년 트렌드 리포트」(2017년, IVP)에서도 같은 조사 항목이 있었다. 2017년과 올해 조사가 표본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는 어렵지만, 그때도 현재 삶에 만족하는 비율이 61.4%,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비율이 44.2%로 이번 조사와 비슷했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느끼는 무력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위축되고 있다(‘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 들었다’ 47%)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생은 생활 반경과 활동 영역이 위축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질문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학교 친구들과 모임이 줄어들었다’(90.8%)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85.3%),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다’(90.3%)라고 응답했다. 대학생의 생활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교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 반경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겪은 비율도 거의 2명 가운데 1명 꼴인 46.8%나 되었다.

[그림]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적 변화 (동의를 '매우+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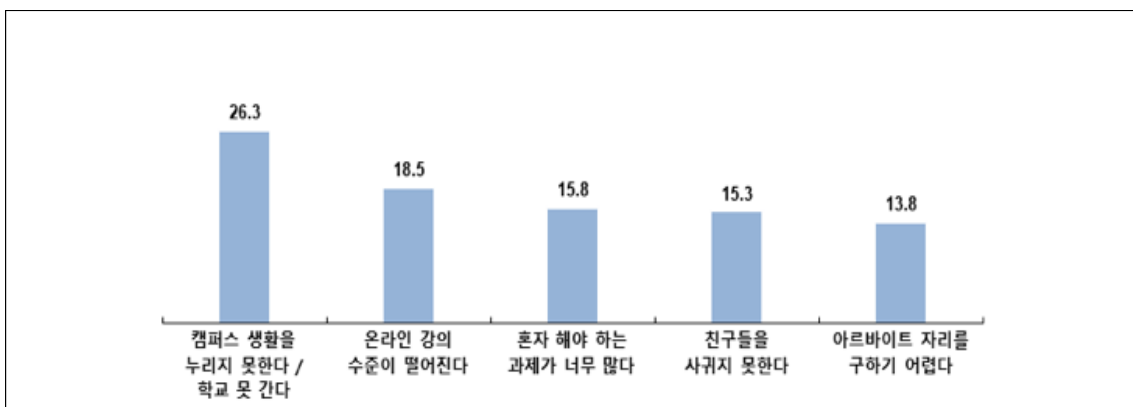
(Base : 일반대학생 전체, N=400, %)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혼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학생활에 힘든 점’이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캠퍼스 생활을 누리지 못한다/학교에 못 간다’를 26.3%의 응답자가 가장 큰 힘든 점이라고 응답했다. 고등학교 때에는 누리지 못한 대학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힘들어 하고, 그것이 생활을 우울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대학 생활에의 힘든 점 : 상위 5개 응답

(Base : 일반대학생 전체, N=4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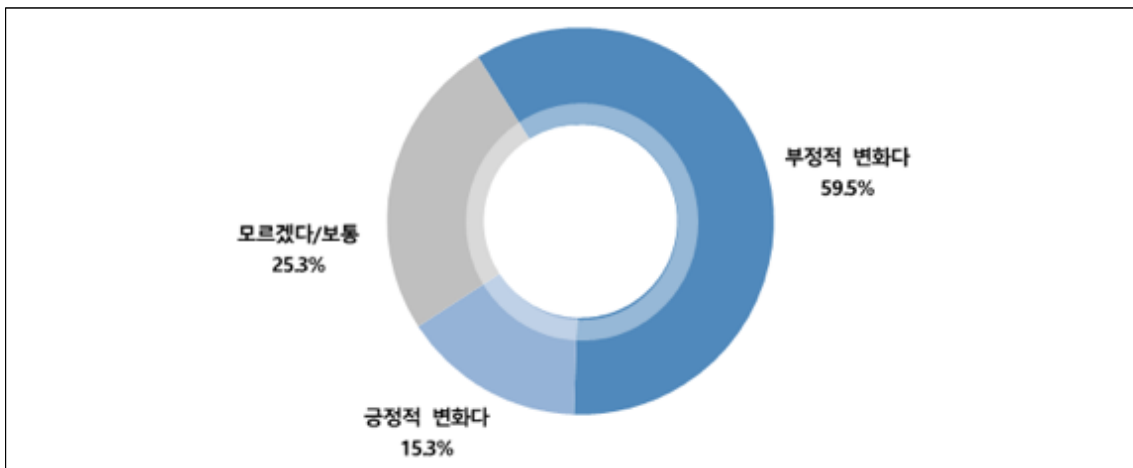


4.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점을 가장 힘들어 한다

또한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는 것도 대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점이다.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적 변화'에서 가장 큰 변화가 '학교 친구를 모임이 줄었다'는 응답이었다. 또한 '대학생활에의 힘든 점'에서도 '친구들을 사귀지 못한다'는 점이 상당한 응답을 받았는데, '지인과의 모임 감소'를 59.5%의 대학생이 부정적 변화라고 응답했다.

[그림]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한 평가 - 지인과의 모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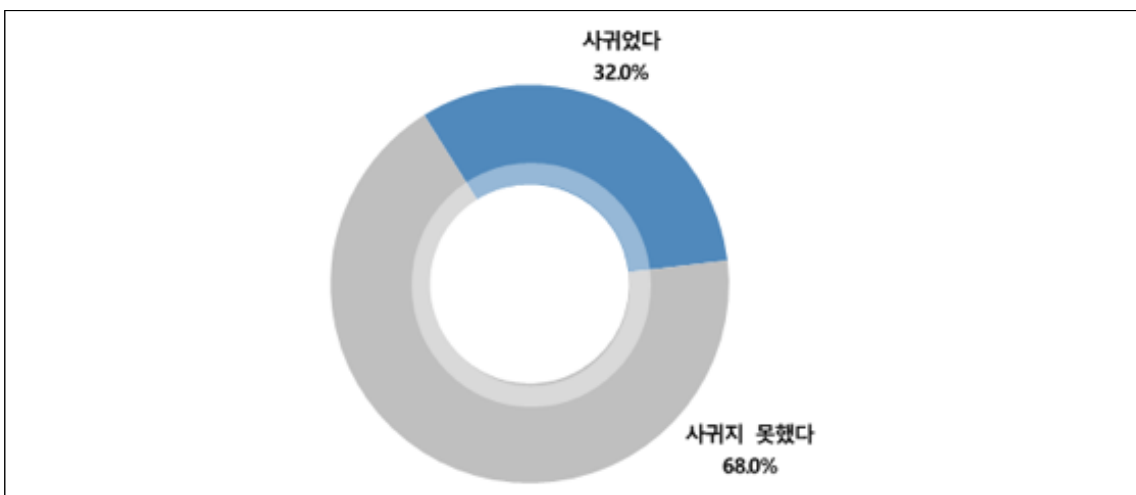
(Base : 일반대학생 전체, N=400, %)



특히 1학년들은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를 사귄 기회도 별로 얻지 못했다. 겨우 32%만이 친구를 사귀었다고 한다. 친구를 제대로 사귀지 못한 1학년들이 학교 생활에 재미를 못 느낀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림] 친구 사귀 여부

(Base : 1학년, N=2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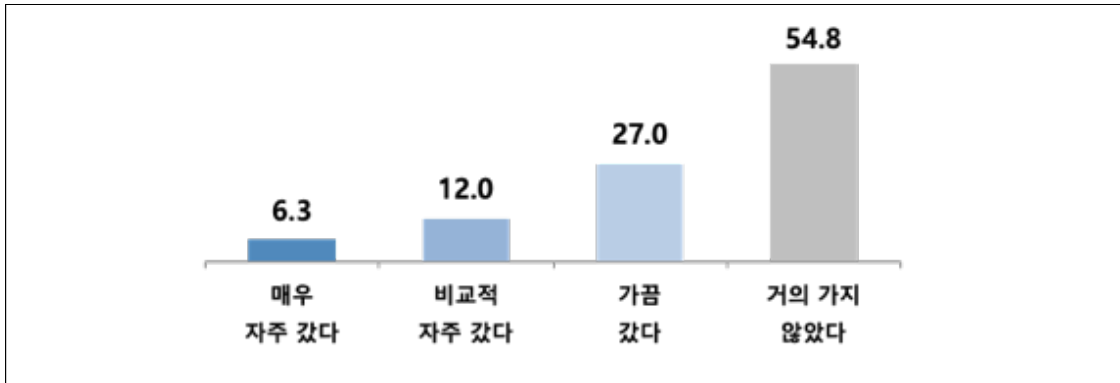


5.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에 거의 가지 않았다’ 55%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생활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이다. 학교 등교 빈도에 관해서는, ‘거의 가지 않았다’ 55%로 2명 중 1명 이상이 거의 등교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끔 갔다’ 27%, ‘비교적 자주 갔다’ 12%, ‘매우 자주 갔다’ 6%로 응답하였다.

[그림] 학교 등교 빈도

(Base : 일반대학생 전체, N=4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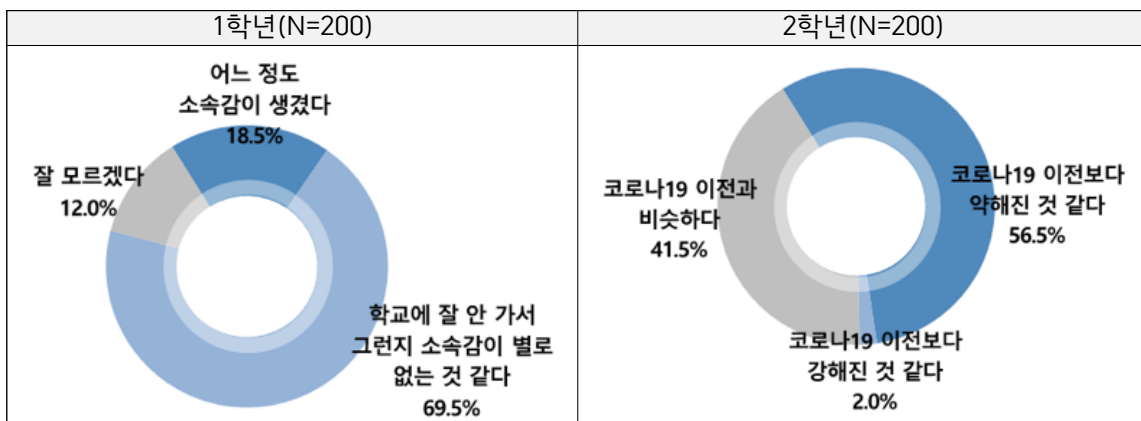


6. 대학생은 자기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못 느끼고 있다(2020학번, 학교 소속감 없다 70%)

사회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 따르면 3단계가 사회적 욕구, 소속의 욕구이다. 한 인간이 먹고 입는 것의 기본적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의 욕구를 바라고 그것이 충족되면 특정 집단, 혹은 특정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이 3단계인 사회적 욕구, 소속의 욕구이다. 특정 집단 혹은 사람들에게 소속되었다는 느낌은 그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거나 활동을 같이 할 때 생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못해서 친구를 사귀지 못한 1학년은 10명 가운데 7명 풀인 69.5%가 소속감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고, 친구와 만나지 못한 2학년 이상은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가 소속감이 약화되었다고 응답했다.

대학생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관계’이다. 대학생은 ‘관계’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즐거움을 얻으며, 생활의 만족감을 느낀다. 그 관계가 소속감 형성의 기초인데, 그 기초가 허약해졌다는 것이 대학생의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대한 소속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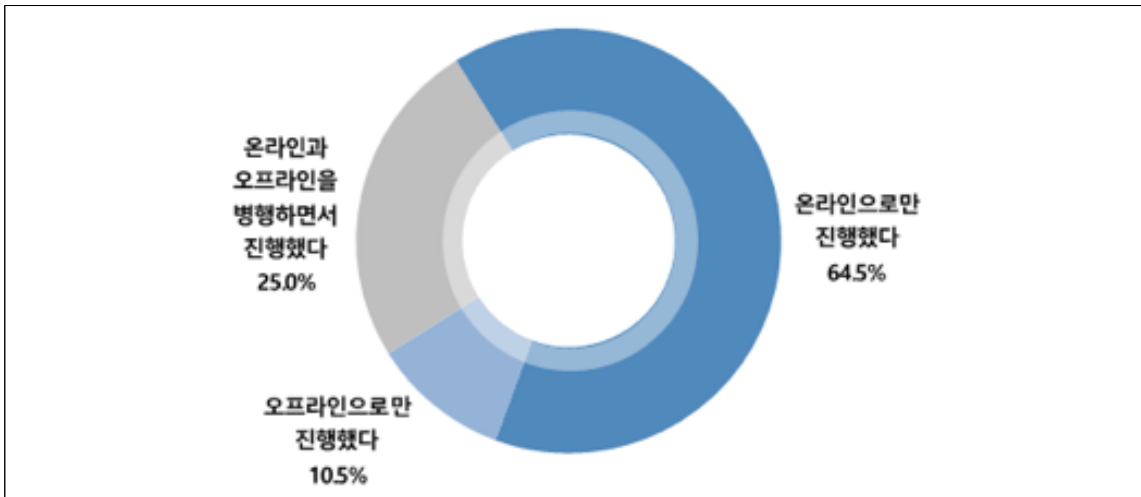


7.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수업도 비대면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다. 전공과목 가운데 온라인 수업만 진행한 경우가 64.5%,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경우가 25.0%였다.

[그림] 전공과목 수업 형식

(Base : 일반대학생 전체, N=4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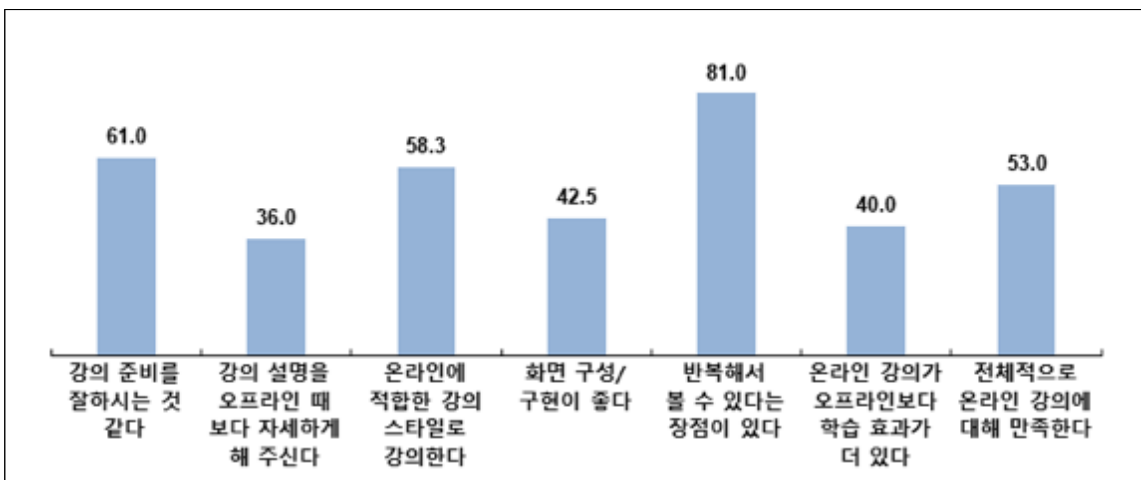


대학생은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강의 준비를 잘 하시고(61.0%) 온라인에 맞는 스타일로 강의를 하려고 노력하지만(58.3%) 응답률이 높지 않아 대학생은 온라인 강의가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이라는 매체의 한계가 있어서 전달 효과가 떨어지고(36.0%), 기술적 측면이 부족해서(42.5%) 학습 효과가 높지 않다고 한다.(40.0%) 그러므로 온라인 강의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53.0%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림] 온라인 강의에 대한 평가 (동의를 '매우+약간')

(Base : 일반대학생 전체, N=4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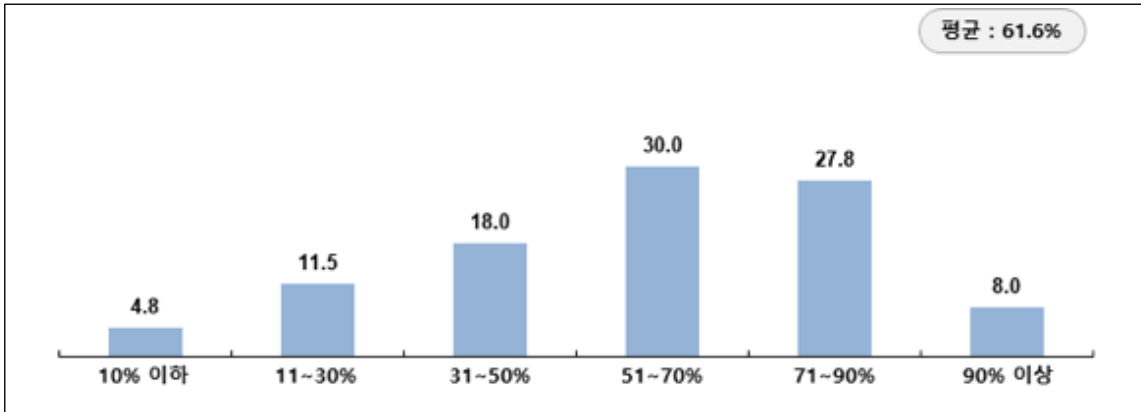


현재 대학생은 대학입시를 위해서 '인강'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세대이다. '인강'은 오랜 온라인 강의 경험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데, 갑자기 준비한 대학의 온라인 강의가 '인강' 수준을 따라 잡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학생은 대학의 온라인 강의의 수준이 인강의 61.6% 밖에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인강’에 익숙한 세대가 급조된 대학교 온라인 강의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온라인 강의 수준 평가-고등학교 인강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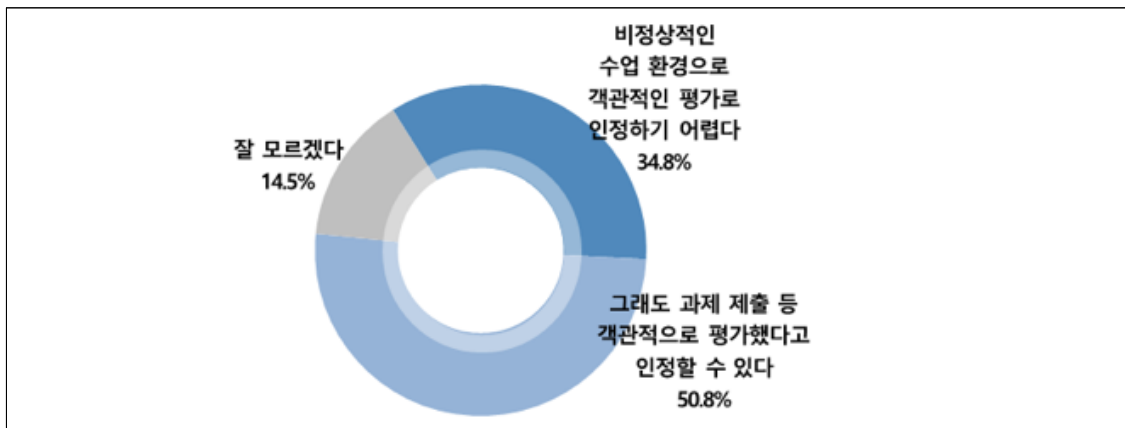
(Base : 일반대학생 전체, N=400, %)



온라인 강의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학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강의의 학점이 객관적이라는 응답은 2명 가운데 1명인 50.8%만이 주장하고, 나머지 1명은 온라인 강의는 허술하고 수강생이 편법 혹은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판단 유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온라인 강의 학점에 대한 평가

(Base : 일반대학생 전체, N=400, %)



8. 현 정부의 정책에는 비판적이다(‘잘하고 있다’, 경제/주거 정책 20% 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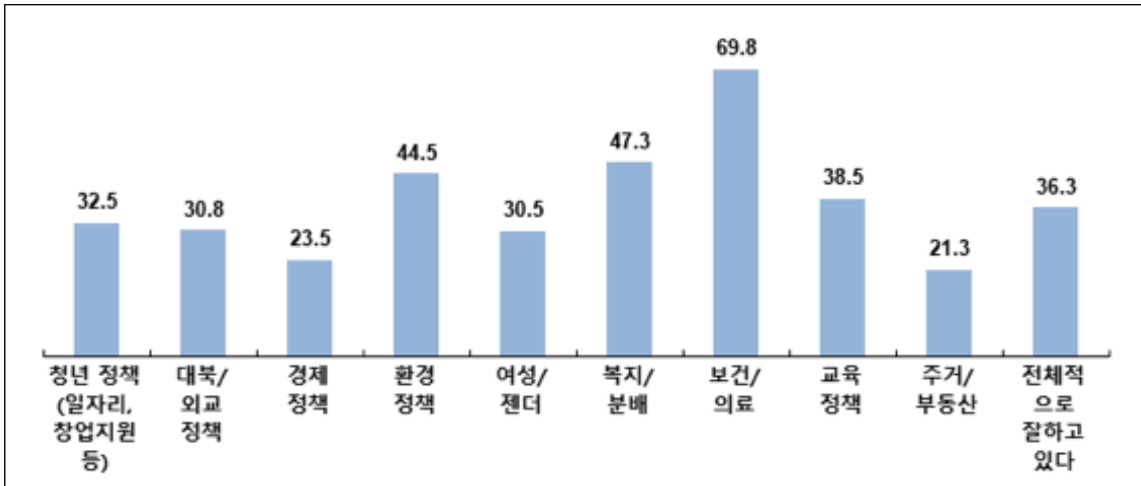
이념 성향이 진보적인 대학생이 진보 31.3%, 보수 16.3%로 진보가 보수보다 2배 가까이 높지만 보수도 진보도 아닌 대학생이 절반인 52.5%에 이를 정도로 대학생은 이념 성향이 강하지 않은 편이다. 2017년의 「청년 트렌드 리포트」(2017년, IVP)에서는 진보 35.2%, 보수 18.4%, 중도 46.3%였는데, 이와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결과이다.(표본 구성이 다르므로 직접 비교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대학생이 진보가 보수보다 2배 정도 높지만 대학생은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이다. 코로나 19 방역을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69.8%인 것을 제외하면 모든 항목에서 긍정 평가가 30%~40%대로 조사되었다. 주거 정책과 경제 정책은 20% 초반대가 나올 정도로 매우 낮게 평가를

했다. 그래서 전반적인 평가도 긍정률이 36.3%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심지어 진보 대학생도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드러나서 정부 정책 평가가 진영주의의 산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림] 정책에 대한 평가 (긍정평가를 '매우+대체로')

(Base : 일반대학생 전체, N=4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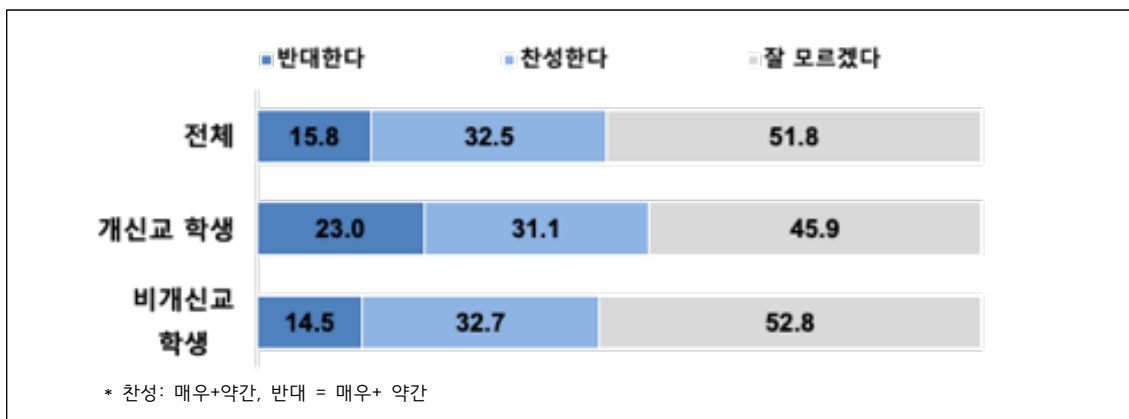


9. 차별금지법에 대해 개신교와 비개신교 학생 간에 인식 차이 크지 않다

한편,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특별한 설명없이 찬반 여부를 질문했을 때 찬성 의견이 32.5%, 부정 의견이 15.8%로 찬성이 부정보다 2배 높았으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1.8%로 대학생은 차별금지법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종교별로 살펴보면, 찬성의견에 대해 개신교 학생 31.1%, 비개신교 학생 32.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개신교인에게서 찬성비율이 훨씬 적은 성인 조사결과와 상이한 것으로 주목된다.

[그림] 차별금지법 찬반 태도(개신교 학생 vs 비개신교 학생)

(Base : 일반대학생 전체, N=400, %)



차별금지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동성애 문제인데, 동성애 지인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29.8%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7년의 「청년 트렌드 리포트」(2017년, IVP)에서는 동성애 지인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7.2%였는데 표본 구성이 다르므로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동성애 지인이 있다는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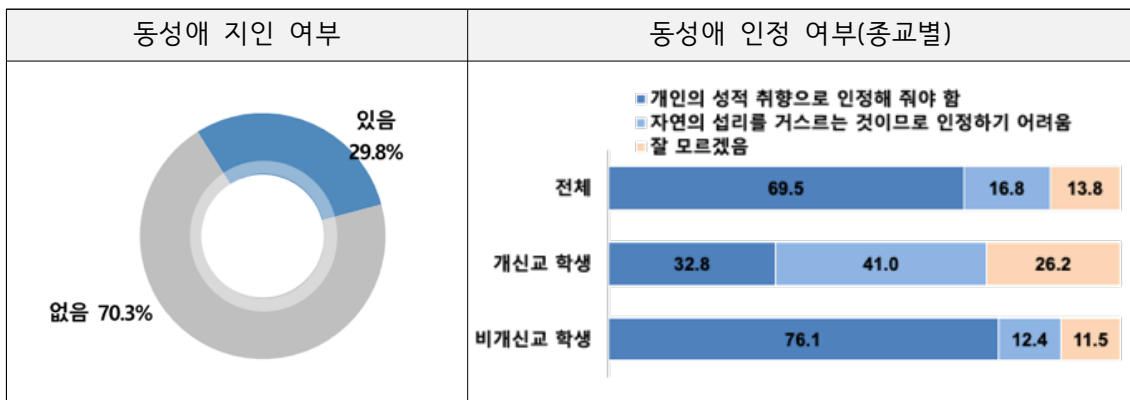
율이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보면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69.5%,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16.8%로 긍정 의견이 부정 의견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태도도 13.8% 밖에 되지 않아서 동성애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성애 지인이 있는 대학생이 동성애 인정 비율이 84.0%로 동성애 지인이 없는 대학생의 인정 비율 63.3%보다 약 20%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동성애 관련 인식은 종교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개신교 학생 41.0%, 비개신교 학생 12.4%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림] 동성애에 대한 태도

(Base : 일반대학생 전체, N=4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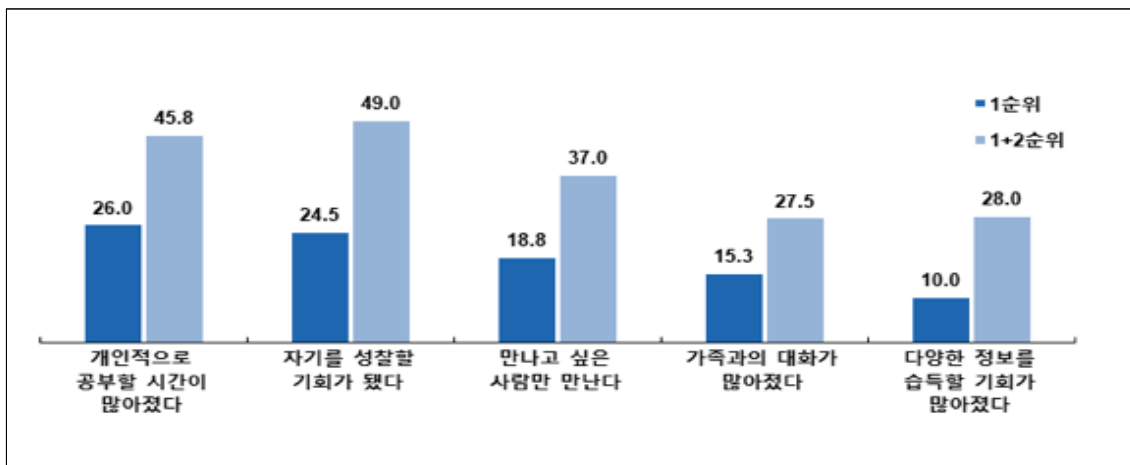


10. 코로나19는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가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바쁘게 이어진 일상 생활이 정지되고 시간이 많아지면 서 '자기 성찰 기회가 되었다'는 응답이 49.0%, '공부할 시간이 많아졌다'는 응답이 45.8%로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긍정적 변화였다.

[그림]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

(Base : 일반대학생 전체, N=4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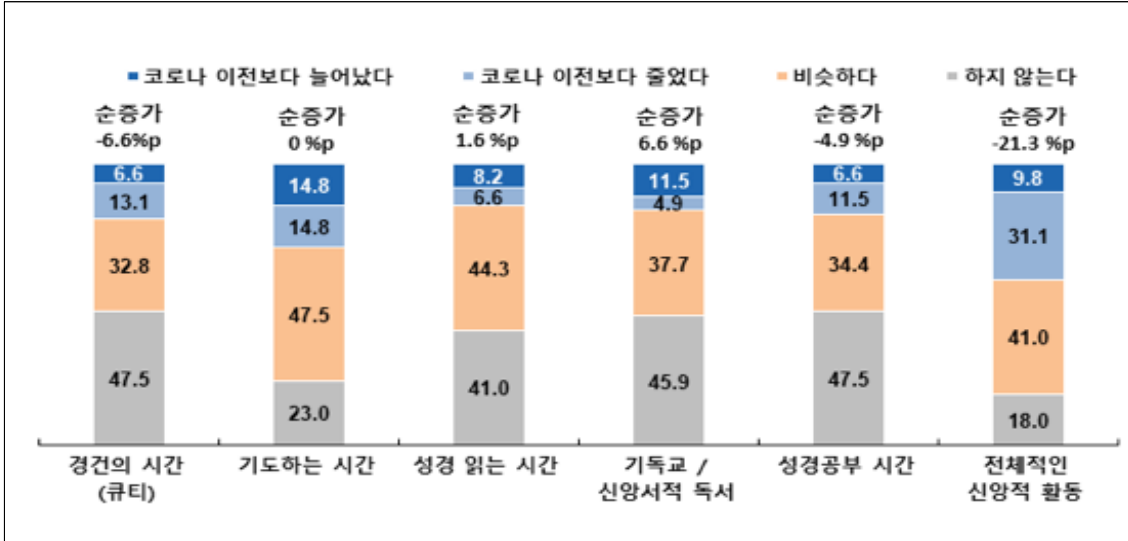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 생활에서도 일부 눈에 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개인적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공부 시간’과 ‘경건의 시간’은 감소했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기독교/신앙서적 읽기’는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많아진 시간을 잘 선용하면 평소 공부 때문에 하기 힘든 신앙서적 독서, 성경공부 등을 시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신앙생활 변화

(Base : 기독교(개신교) 대학생, N=6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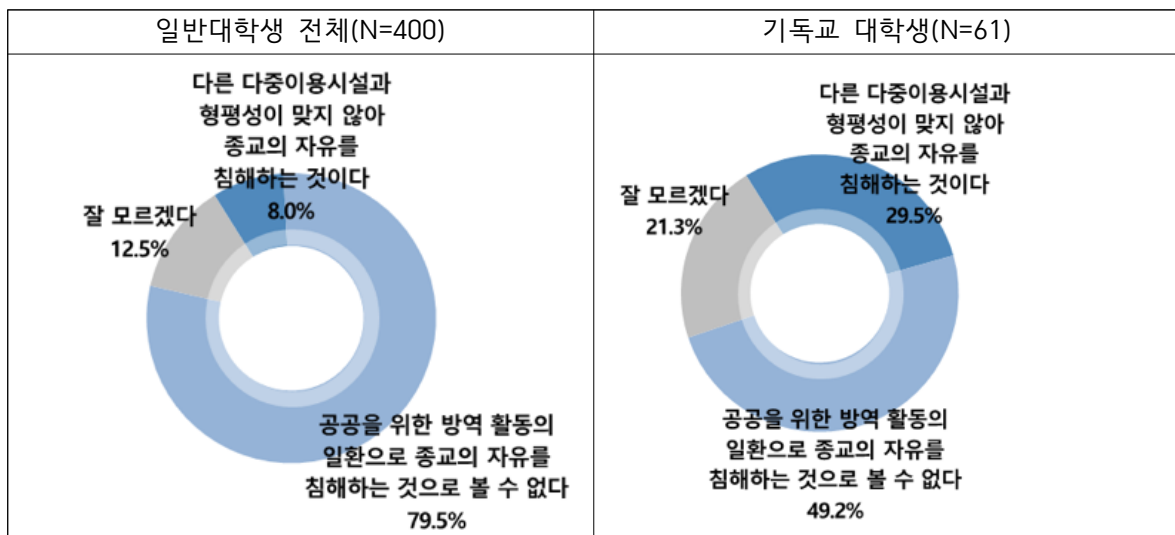


11.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집회 자제 등 권고 조치는 종교의 자유 침해로 여기지 않는다

대학생들은 집회 자제, 소그룹 모임 금지 등의 정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 79.5%로 지배적이다. 기독교 대학생의 경우는 ‘종교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49.2%,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는 응답이 29.5%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 더 높기는 하지만 다른 대학생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응답률이 떨어진다.

[그림]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대한 의견

(%)





시사점

대학생들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학교 강의를 온라인 강의로 전환했는데 그 강의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다거나 학교 생활을 누리지 못한다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거의 절반 가까운 대학생은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27.0%는 ‘거의 온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고 했다(넘버스 63호 보고서 6쪽 참조).

대학생이 왜 무력감에 젖어 있을까?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의 절반 가까이인 46.8%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이 들었다’라고 고백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 반경이 줄어들어 하고 싶은 일들을 맘껏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다(넘버스 63호 보고서 7쪽 참조).

그런데 이런 무력감의 근본 원인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취업’문제이다. 대학생의 75%가 취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넘버스 63호 5쪽 참조).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아서 이른바 명문대조차 나와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 대학생에게 무력감을 안겨주는 것이다.

취업 문제는 대학생에게 절대적 이해 관계가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취업 문제를 심각하게 느낄수록 사회적으로 포용적이기 보다는 자기중심적이 된다. 유럽에서도 이민자를 수용하는 문제에서도 젊은이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이민자를 거부하고 외국인을 배척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은 사회적 사건이나 현상을 판단할 때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대학생은 공정성에 대해서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관한 공정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들은 나와 관련없는 사회적 문제는 무관심하며, 별다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번 조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보안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서도 54%가 ‘잘못한 일’이라 하고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그보다 적은 30%였다. 보안요원 일자리는 사실 대부분의 대학생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많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알바, 인턴으로,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때로는 몇 년씩 주위 눈치를 보며 취업 시험공부를 하는 현실에서 일부에서는 별다른 노력없이 정규직이 된다는 것은 자기 현실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감정이 표출된 것이 이른바 인국공(인천천국제공항의 준말) 사태인 것이다.

그만큼 요즘 대학생은 자기 살기에 급급해서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나의 생존 앞에서 관용과 포용은 쉽지 않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이타적인 사회가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대학생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서 취업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야 한다. 또한 교회는 이런 대학생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성경말씀처럼 이웃에게 포용적인 크리스천이 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정치 분석]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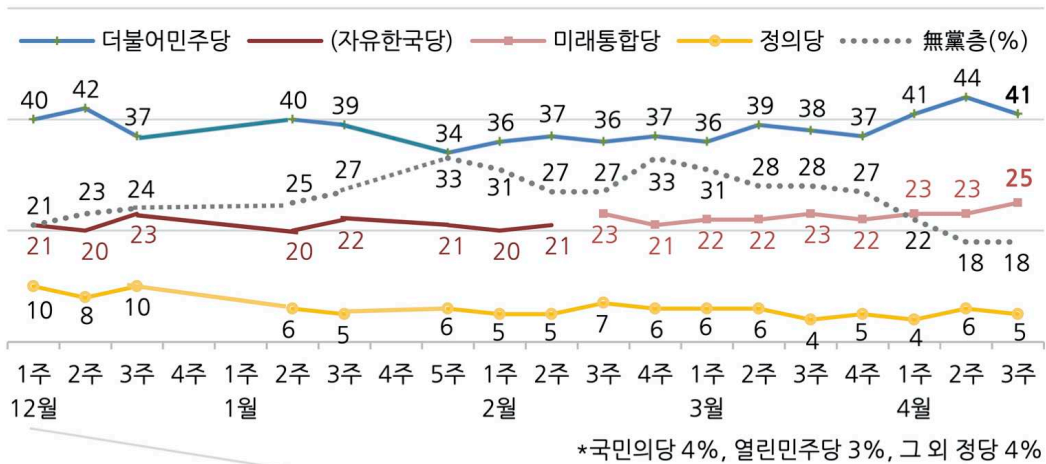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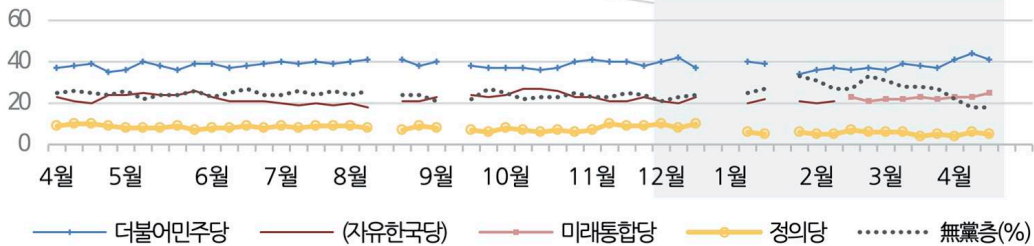
우리나라 정당 지지도 특징, ‘강고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이다’

- 한국갤럽이 올해 4월 총선 직전까지 1년 동안 정당 지지도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0% 내외,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은 20%를 약간 상회하며 두 정당의 지지도는 별다른 진폭 없이 안정적인
- 특히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보다 그 변동 폭이 작고, 상대적으로 무당층 변동 폭이 큰 특징을 보임

[그림] 한국갤럽 정기조사, 현재 지지하는 정당



◎ 주요 정당 지지도 - 2019/2020년



*무당(無黨)층=‘현재 지지하는 정당 없음/모름/응답거절’

*자료 출처 : 한국갤럽 정기조사, 전국지표조사, '전국지표조사 심층리포트 1호 : 정당지지도에 대한 다층적 이해', 2020.08.30.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2020.8.20.-22)

**[Note] 전국지표조사 : 국내 주요조사전문기관 4곳이 연합해서 2020년 7월부터 2주에 한번씩 주요 국가적 이슈에 대한 전국민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는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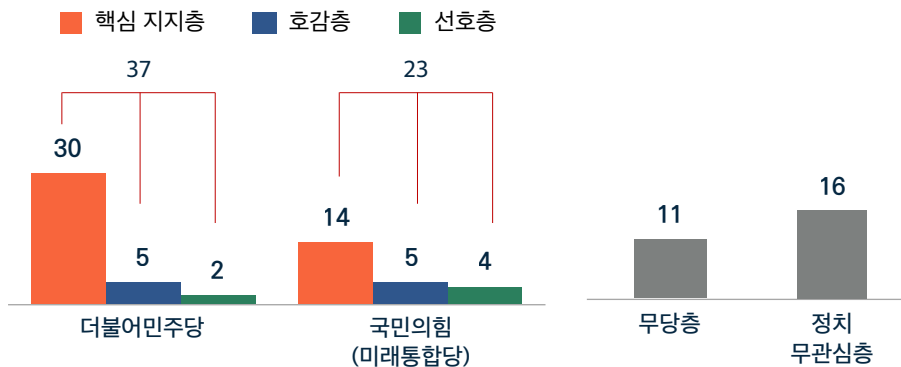
2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유형화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 최근 전국지표조사(NBS)는 정당 유형화 분석을 실시했는데(정당 유형화 분석이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이해를 다각도<정당 지지 순위, 호감 정당 등>로 확인하여 유권자를 유형화한 것을 말함),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30%, ‘호감층’ 5%, ‘선호층’ 2%,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은 14%, ‘호감층’ 5%, ‘선호층’ 4%로 나타남
- 두 정당 간 핵심지지층 비율은 두배 정도 차이는 것으로 분석됨
- 정당 유형화를 통해서 현재와 향후 지지의 추이를 가능하다면 당분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당 지지도 역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 지형이 우세한데, 보수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중도층 (무당층+정치 무관심층)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관건이며, 반대로 진보 정당은 현 구도를 어떻게 방어하는가가 관건이 될 것임

[그림] 정당지지도 기반 유권자 유형화 (%)



*자료 출처 : 전국지표조사, '전국지표조사 심층리포트 1호 : 정당지지도에 대한 다층적 이해', 2020.08.30.(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2020.8.20.-22)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의 결집도에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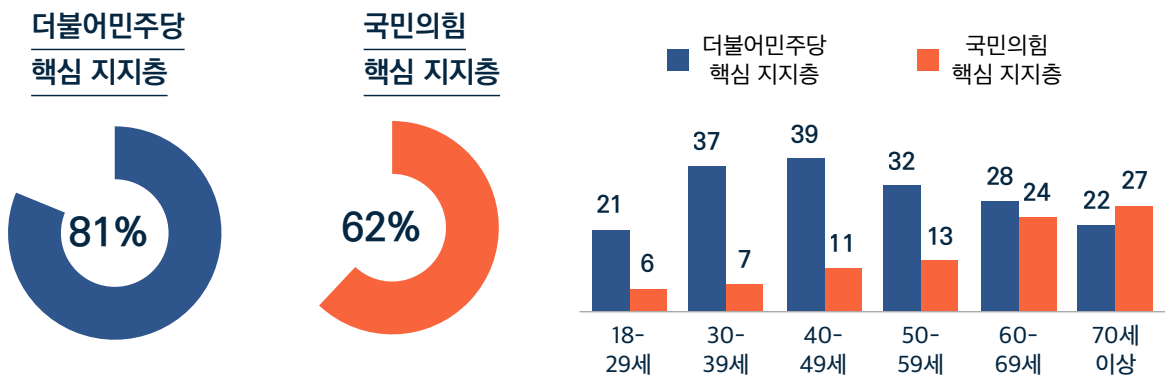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 중 '핵심 지지층' 비율 81%

- 국민의힘 지지자 중 '핵심 지지층' 비율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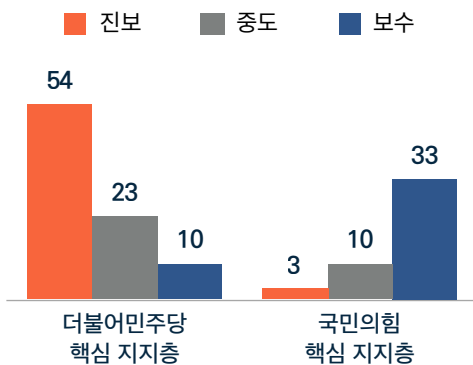
-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따른 지지하는 정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81%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 '핵심 지지층'은 62%로 나타나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지지층'을 더 많이 갖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은 '60대'(28%)와 '70세 이상'(22%) 및 '대구/경북'(14%)과 '부산/울산/경남'(22%) 등 전통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도 핵심 지지층을 의미 있게 확보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40대 이하'와 '호남' 등 취약 계층으로 구분되는 유권자 중에 핵심 지지층이 많지 않음
-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핵심 지지층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54%, '국민의힘' 3%로 응답한 반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10%, '미래통합당' 33%로 나타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도 핵심 지지층 비율의 차이를 보임
- 또한 중도 성향의 사람의 핵심 지지층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23%, '미래통합당' 10%로 나타나 중도 성향층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두 정당 지지자 중 핵심 지지층 비율 (%)

[그림] 연령별 핵심 지지층 비율 (%)



[그림] 정치적 성향에 따른 양 정당 핵심 지지층



*자료 출처 : 전국지표조사, '전국지표조사 심층리포트 1호 : 정당지지도에 대한 다층적 이해', 2020.08.30.(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2020.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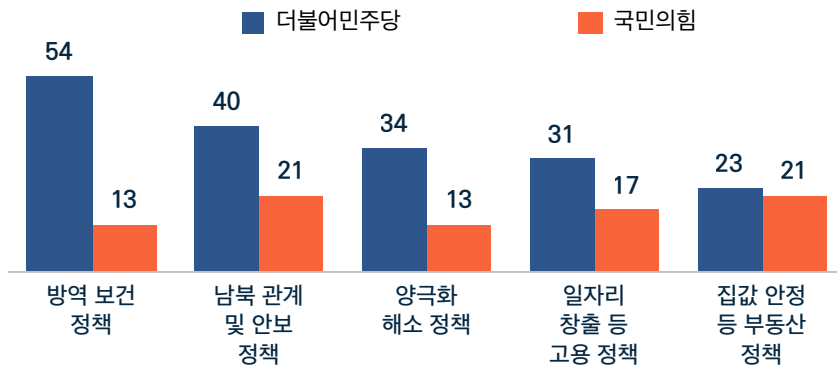
3



정당 지지도의 요체, ‘미래 지향적 정책 역량’

- 정책 실행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5가지 정책(방역 보건 정책, 남북 관계 및 안보 정책, 양극화 해소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등 고용 정책,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할 것 같은 정당에 대해 물은 결과, ‘잘 할 것 같다’ 응답률에 있어 5개 분야 정책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타남
- 향후 정당 지지도와 관련 미래 삶과 관련한 정책 분야를 어떻게 예비하고 담론화하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인데, 기후 변화 대응, 기본 소득, 성인지 감수성, 미래세대 육성 등과 관련한 정책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음. 이는 삶의 질과 관련한 영역이기에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틀과 무관하게 역점을 두어야 할 영역이라 할 것임

[그림] 각각의 정책을 잘 할 것 같은 정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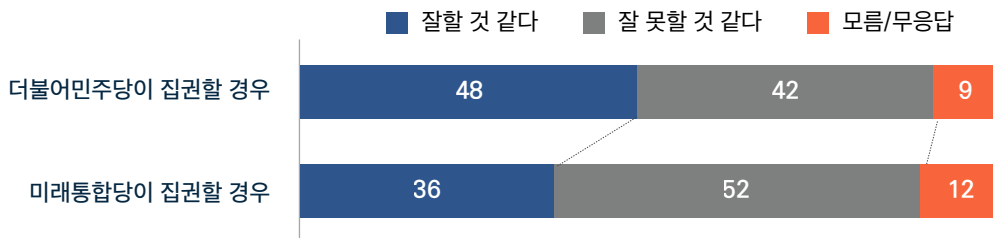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전국지표조사, '전국지표조사 심층리포트 1호 : 정당지지도에 대한 다층적 이해', 2020.08.30.(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2020.8.20.-22)

● 차기 대선에서 집권한다면 국정 운영 ‘잘할 것이다’, 두 정당 간 차이 좁혀짐

- 집권을 한다면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48%, ‘국민의힘’ 36%으로 정당 지지도 격차나 내용에 비해 양당 간 차이가 좁혀짐. 대선은 진영 대 진영의 대결이니 정당 지지도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지는 않음.

[그림] 각각의 정책을 잘 할 것 같은 정당 (%)



*자료 출처 : 전국지표조사, '전국지표조사 심층리포트 1호 : 정당지지도에 대한 다층적 이해', 2020.08.30.(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2020.8.20.-22)



언론 보도 통계 큐레이션 및 이슈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코로나 19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분노·공포 커졌다... "심리방역 필요"](#)

연합뉴스_2020.09.08.

['주 7시간' 과로 시달리는 택배기사들 "죽을까 두렵다"](#)

머니투데이_2020.09.11.

[코로나가 바꾼 결혼문화, 선\(先\)동거, 후\(後\)결혼식...결혼은 미뤄도 한집에 산다](#)

조선일보_2020.08.29.

[취업자 6개월째 줄어... 거리두기 강화 9월엔 고용충격 더 클 듯](#)

동아일보_2020.09.10.

[코로나 록다운... PC방 매출 -91%·헬스장 -79%·독서실 -66%](#)

조선일보_2020.09.10.

사회 일반

[미래가 불안한 2030, 온라인 '점'에 빠지다](#)

동아일보_2020.09.08.

[SOS생명의전화\(자살예방 상담원\) 인터뷰 '저 그냥 죽을게요'](#)

중앙일보_2020.09.10.

[노년의 삶 파괴하는 가난! 노인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한겨레_2020.09.08.

[한국 SNS 이용률 세계 3위...10대 폐북, 40대는 밴드](#)

경향신문_2020.09.07.

[당근마켓 월 사용자 1000만명 돌파, 지역 기반 서비스 확대](#)

조선일보_2020.09.09.

["일본인 79% 문 대통령 불신, 한국인 94% 아베 총리 불신"](#)

연합뉴스_2020.09.10.

큐레이션

[당신의 '언택트'를 가능케하는 건...코로나 시대의 '투명 노동자들'](#)

프레시안_2020.09.09.

['한국적 가족주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일보_2020.09.08.

넘버즈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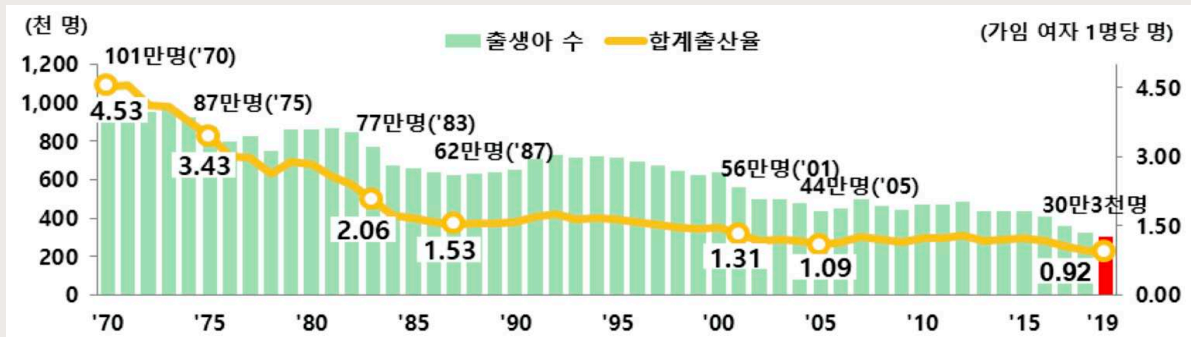
2020년 상반기 출산율, 또 다시 최저치 경신!

지용근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자살율, 노인빈곤율, 고령인구비율 등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러운 세계 최고/최저 수준의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합계출산율(합계출산율 :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가리킴)이다. 지난 8월 26일, 통계청에서 '2019년 출생 통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201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처음 1.0명 밑으로 떨어진 2018년 0.98명에 비해 0.0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생 통계 수치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였다(그림1 참조). 그런데 같은 날 통계청에서 올해 2/4분기 합계출산율을 함께 발표했는데 작년 말보다 더 하락한 0.84명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년 6월 인구동향', 2020.08.26). 세계 최저치를 또 다시 경신한 것이다. 2/4분기 합계출산율은 작년 2/4분기(0.92명)보다 0.08명 더 감소한 것이다. 더군다나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전국평균 0.84명보다 훨씬 낮은 0.64명으로 무려 0.20명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자들은 출산율과 인구밀도는 (-)상관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즉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젊은이들이 그 공간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환경 속에 있기에 그럴수록 결혼, 출산 등은 뒤로 미뤄놓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림] 년도별 합계출산율 추이(5년 단위)*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출생 통계', 2020.08.26.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낮은가는 다른 나라 출산율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번에 통계청에서 OECD 국가별 합계출산율도 함께 발표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OECD 전체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명으로 한국의 0.98명(2018년)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0명 미만인 나라가 된지 이미 오래이다. 주요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이스라엘이 3.09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미국 1.73명, 일본 1.42명으로 우리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넘버즈 제62호, 14쪽 참조).

이렇게 낮아지는 출산율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2006년부터 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 14년 간 185조 원을 쏟아 부었고, 특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 기본계획에는 약 104조원을 투입했고, 올해는 약 70조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효과가 잘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다. 먼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결혼을 해도 늦게 하고, 출산도 안하려고 한다. 또 출산하는 경우 출산 연령은 해마다 계속 올라간다. 년도별 혼인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 31만 건에

서 2019년 24만 건으로 10년 사이에 23%가 줄었다. 2012년부터 혼인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이다(표 1 참조). 초혼연령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남성 33.4세, 여성 30.6세로 모두 30세를 넘어섰다(통계청, 2019년 혼인이혼통계). 30세가 넘는 상태에서 첫 자녀를 가지면 둘째를 갖기가 그만큼 고�령으로 인해 확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표1] 연도별 혼인 건수 추이

(천 명, %)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혼인 건수	309.8	326.1	329.1	327.1	322.8	305.5	302.8	281.6	264.5	257.6	239.2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출생 통계', 2020.08.26.

한편으로, 결혼 지표 중 하나인 미혼의 결혼 의향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보고서(전국 미혼남녀 2,236명, 2018. 07~09)에 따르면 미혼 남성의 결혼 의향률이 2015년 75%에서 2018년 45%로 뚝 떨어졌고, 미혼 여성은 2015년 65%에서 2018년 45%로 남성보다 하락률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결혼 의향률이 절반도 안되는 45%라는 결과는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여기서 흥미있는 연구 한 가지를 소개한다.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 분석'이란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전국의 기혼부부 663가구를 대상으로 '부부 평균소득', '근로시간', '부동산 가치', '부부 평균 저축', '부부 여가 만족도', '남편의 근로시간' 등의 변수가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보고서이다. 분석 결과 부부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보유 부동산 가치가 높을수록, 부부 평균 저축이 많을수록, 부부 여가만족도가 낮을수록, 남편의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출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과 주거비용안정이 첫째야 출산율을 올리는데 영향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주거비용안정보다 상대적으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보면,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워라벨이 출산에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신혼 부부의 경우 소득이 올라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이는 아이 출산이 열등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민의식조사'(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2018.10)결과를 보면, 기존의 출산율 목표를 출산장려정책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절대다수(9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을 올리는데 우선하는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 24%, '주거여건 개선' 20%, 사회적 돌봄 체계 확립' 15% 등의 순으로, 삶의 질을 올리는데 '워라벨'이 가장 높게 응답됐다. 또한 80%의 국민은 현재 자녀 출산·양육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들을 보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일과 여가의 균형있는 '워라벨 문화'를 정착시키는게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가 되어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출산한 가구에 아동수당 등 현금복지 형태로 집중 지원됐다면, 이제는 초혼 연령을 앞당기고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

저출산 현상은 이제 전 국민적인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데,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중에 비어있는 교회 건물을 이용해 교회에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아이돌 돌봄 역할을 할 수 있고, 가정을 중시하는 교회 문화 속에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교회내 운동을 벌일 수도 있고, 국가적인 워라벨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교회가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출산문제를 다른 이의 문제로 생각지 말고, 한국사회의 영향력 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국가를 위한 한국교회의 중요 과제로 인식하고 전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1-33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33-58호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59-62호

-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 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트로인, (주)하츠, 한국피스메이커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준상,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병희, 이만민, 이미경, 이완중, 이영선,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현주, 장명희, 장우성, 장병우, 장형철, 정종섭, 정준, 전치영,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가나다순)

• 금주 신규 후원자 | 일산세광교회(황해국 목사), 김흥기(미국 OIKOS대학교 부총장), 박재찬(CBMC 중국 연태지회)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

김은선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